진솔한 대화·연출로 '젊은 배우들의 시대' 선언

관객들과 만난 한예리·변요한 '선택'에 대한 고민 솔직 토크
30대 이제훈 "격정멜로 도전"
'언프레임드' 박정민·손석구 등 직접 쓰고 연출한 단편작 소개

배우 한예리·변요한·이제훈(왼쪽부터)이 7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KNN씨어터에서 열린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액터스 하우스'의 주인공으로 나서 관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운 배우의 시대를 활짝 여는 무대가 됐다. 박정민·이제훈·변요한·최희서·한예리·전종서 등 젊은 배우들이 6일 막을 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며 '배우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배우로 살아가는 일상과 고민, 희망을 진솔하게 말하는 '액터스 하우스', 직접 연출한 단편영화 프로젝트 '언프레임드'가 이들이 한국영화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임을 확인시켰다.

● "자유로운 도전과 선택을 꿈꾸다"

이제훈과 변요한, 한예리와 전종서는 올해 영화제가 신설한 '액터스 하우스'에서 7일부터 9일까지 관객을 만났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동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친밀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의 무대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이들에게 거는 충무로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배우들도 기대에 부응하듯 신인시절부터 스크린 주역으로 떠오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씨어터에서 관객을 만난 한예리는 "단편영화로 연기를 시작할 때 친구들과 가장 먼저 왔던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라면서 "좁은 콘도에서 15명씩 자고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영화를 봤다"고 돌이켰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저의 성장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영화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9일 무대에 나선 변요한은 첫 작품인 2011년 단편영화 '토요근무'를 "한국예술종합학교 후문에서 찍었다. 당시 낯설었던 현장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처음 완성작을 봤을 때 지금보다도 더 식은땀을 흘렸다"며 웃었다.

이들의 고민은 하나로 통했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이제훈)는 바람이다. 한예리는 이를 위해 "버틸 수 있을 기준을 계속 만들어왔다"면서 "결국 선택"이라고 밝혔다. 변요한도 "데뷔와 동시에 은퇴하면 어쩌나 생각했다"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주변의 반대에도 하고 싶은 작품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자유롭다"고 말했다.

선택의 길 위에서 늘 관객의 평가 속에 살아야 한다는, "배우의 숙명"(이제훈)을 떠올린 이들은 도전의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제훈은 "30대가 되니 격정멜로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운동해서 뭐하나. 굉장히 본능적이거나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30대에 남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배우의 무게감과 책임감"

이들은 새로운 무대를 직접 꾸미기도 했다. 박정민을 비롯해 이제훈·손석구·최희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단편영화를 영화제에서 소개했다. '언프레임드'라는 프로젝트 아래 각각 '반장선거'·'블루해피니스'·'재방송'·'반디'를 선보였다.

이 같은 과정 역시 배우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임을 이들은 강조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얽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박정민은 "배우들이 준비한 걸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웠다"면서 "지구상 모든 감독을 존경하게 됐다, 중압감을 버티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다"고 밝혔다.

자신의 연출 경험이 촬영현장에 나서야 할 배우로서 시선을 넓혀줬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모니터석 앞 내가 창피했다, 무게감과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다."

해운대(부산)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지옥·마이네임 등 OTT 드라마시리즈 첫 공개

배우 전종서 "경계 무너진 지금은 기회"
레오 카락스 감독 "극장 사라질까 슬퍼"

영화제가 OTT를 보는 두가지 시선

감염병의 확산은 세상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영화 축제도 다르지 않아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초청작 1회 상영만으로 축소 운영됐다. 극장 객석도 25%만 열었다. 갈증을 풀어내듯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과도기'와도 같은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올해 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은 70개국 장단편영화 223편. 이 가운데 올해 신설된 '온 스크린' 부문의 세 작품도 포함됐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드라마)이다. 넷플릭스의 '지옥'과 '마이 네임', HBO의 태국 작품 '포비든'이다. 영화제가 일부 OTT 오리지널 영화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드라마 시리즈를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박정민 등 배우들이 연출한 단편영화 프로젝트 '언프레임드'도 왓챠의 작품이다.

넷플릭스 '지옥'의 한 장면

'지옥'의 박정민·유아인, '마이 네임'의 박희순·한소희 등 각 작품의 배우와 연출자 등 주역들은 이번 영화제 '오픈 토크'와 '야외무대인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섰다. 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OTT 작품으로 '대세를 이뤘다'는 시각도 과장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투자·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일으킨, 매체로서 영화를 둘러싼 세계적 논쟁 이후 불과 4년 만이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몰고 온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와 비영화, 영화와 시리즈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현실을 영화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들에게도 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액터스 하우스'에 참여한 전종서는 8일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같은 기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청난 속도의 변화 속에서)나를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나와 우리가 많이 바뀔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각은 여전히 맞부딪친다. 거장의 작품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아네트'를 선보이는 레오 카락스 감독은 10일 '마스터클래스'에서 "극장이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슬프다"면서 "극장은 사회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해운대(부산) | 윤여수 기자

드라마 '무삭제판' OTT선 화끈하게

MBC '검은태양' tvN '홈타운' 등
TV서 편집됐던 잔인한 장면 공개
"영화 같다" 호평속 '투 트랙 전략'

'더 화끈하고 풍부하게!'

최근 드라마들이 '무삭제판'으로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MBC '검은태양', tvN '홈타운' 등 스릴러나 액션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폭력·선정성 등의 이유로 안방극장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분량을 '무삭제판' 버전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새롭게 공개하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소 잔인한 액션 장면이나 편집 등으로 캐릭터 본연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은 아쉬움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최근 '검은태양'은 첩보드라마의 개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무삭제'를 선택했다. 드라마는 국가정보원 현장요원으로 활약하다 동료들을 잃은 남궁민이 배신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숨 막히는 육탄전과 총격전을 다채롭게 그리고 있다. 방송에서는 해당 장면들을 주로 15세 이상 시청가에 맞춰 편집했지만, OTT인 웨이브에서 별도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세 이상 시청가로 공개했다. 덕분에 "영화 같다"는 호평을 이끄는 동시에 웨이브에서는 신규 회원 시청 점유율이 21%를 넘기는 등 유료 가입자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 '검은태양'의 한 장면

tvN '홈타운'과 22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 '드라마 스페셜 TV시네마' 시리즈도 안방극장과 OTT용 버전을 다르게 만들었다. 일반 시청자와 함께 스릴러·SF·공포 장르를 선호하는 마니아층도 공략하기 위해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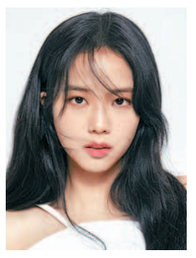
내년 공개 예정인 '이브의 스캔들' 등 치정 멜로 소재의 드라마도 OTT용 '무삭제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와 OTT간의 협업으로 비롯된 새로운 제작 방식에 방송가의 관심도 계속 높아가고 있다. 11일 웨이브 관계자는 '무삭제판'에 대해 "방영 시간, 방송심의, 편성 제한 등 안방극장에 따르는 각종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영화, 드라마 등 각종 포맷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진 흐름에 기댄 변화이기도 하다. 'TV시네마'는 'F20' 등 관련 시리즈를 방송, OTT용 영상과 함께 영화로도 제작해 CGV를 통해 개봉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블랙핑크 지수, 손흥민과 열애설 부인



지수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11일 지수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수와)관련된 열애설 루머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엄중히 지켜봤지만 루머가 해외에도 확산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두 사람이 비슷한 팔찌를 찬 것, 지수가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를 직접 현지에서 관람한 점,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입국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교제하는 사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007 노 타임 투 다이' 관객 100만 돌파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가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며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8~10일 사이 21만2000여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이날 오전 누적 관객 100만1000명을 넘겨 개봉 13일째 100만 관객을 모았다. 전 세계 흥행 수입도 3억 달러(3500억원)를 넘겼다. 추석 개봉작인 범죄 액션 영화 '보이스'는 같은 기간 8만4000여 관객을 모아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은 127만여명이다.

임영웅 '신사와 아가씨' OST 부른다

임영웅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를 부른다. 11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이날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발매된다"고 밝혔다. 이 곡은 가수 이문세가 부른 동명의 발라드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로 '신사와 아가씨'의 메인 테마곡으로 쓰인다. 작곡가 한밤이 원곡의 담백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임영웅의 섬세한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이날 음원으로 정식 발매되기 이전인 지난달 25일 첫 방송부터 삽입돼 화제를 모았다.

은혁·규현, 두바이 한국관광 홍보 행사 참여

은혁

규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과 규현이 두바이에서 열리는 한국관광 홍보 행사에 참여한다. 11일 소속사 레이블SJ에 따르면 은혁과 규현은 16일(한국시간)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공섬의 '더 포인테' 서쪽 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연다. 공연은 한국관광공사 두바이지사 등이 개최하는 한국 홍보 행사 '필 코리아 2021' 일환으로 마련됐다. 은혁과 규현은 무대에 올라 슈퍼주니어의 유닛인 D&E(동해·은혁)의 '뗬다 오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현의 솔로곡 '광화문에서' 등을 부를 예정이다.

문체부, '유야호(유재석)'에 한복사랑 감사장

정부가 MBC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 유재석의 부캐(부가 캐릭터)의 '유야호'에게 '한복사랑 감사장'을 수여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 유야호, 아이돌그룹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등 총 6개 팀에게 '한복사랑 감사장'을 13일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야호(유재석)는 앞서 'MSG워너비' 특집에서 신한복과 각종 한복 소품을 착용하고 출연해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등도 한복 상품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한복 진흥 사업에 힘써 감사장을 받는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